

천만송이국화 · 도시혁신 '흥행'

익산시, 수도권 · 경상권 지역방문객 30% 증가... 72만명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익산시가 천만송이국화와 도시혁신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으며 쌍끌이 흥행에 성공했다.

익산시가 개최한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도시혁신 산업박람회가 각각 72만 명과 5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총 72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전라·충청권을 넘어 수도권과 경상권 지역 방문객이 지난해 대비 30% 이상 증가하며 전국 대표 국화축제로 발돋움했다.

10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현장 매출이 24억 원에 달해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 새로운 전시 연출 방식과 전시장 확대, 야간경관 활성화 풍성한 공연 등 더불어 익산의 마스코트 마룡이 활약이 컸다. 새롭게 선보이는 대작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와 품격 높은 공연, 전시장별 차별화된 주제와 조화로운 프로그램 운영 또한 전국 수준의 축제임을 자랑했다.

20주년을 맞아 낮부터 밤까지 즐기는 국화축제장을 선인하며 불꽃놀이 연출 덕분에 개막부터 관람객의 시선을 끌며 인기몰이를 시작했다.

특히 스탬프투어는 분산되어 운영하

는 축제장인 행복정원과 핑크물리정원을 소개하고 새로 조성된 어린이정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축제장을 뜨겁게 달군 또 다른 인기는 익산의 마스코트 마룡이었다. 스탬프투어의 경품으로 마련한 마룡이 인형, 키링, 볼펜을 받기 위해 하루에도 수천명의 관람객들이 도전을 했다.

마룡이의 인기는 경품을 떠나 관람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빵으로 재탄생했다. 익산시여성체육협회는 마룡이 빵틀을 직접 제작하고 익산 쌀과 팥으로 빵을 만들어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도 국화축제 인생사진 즉석 인화 이벤트,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관람객 꽃다발 증정, 다이로움 카드 1만원 포인트 적립 이벤트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관람객들의 체류시간 연장으로 관람객 만족도 증대와 매출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럼피스킨병 적기 방어에 만전”

정현을 익산시장, 백신 접종 · 모기 박멸 선제적 방역 거듭 당부

정현을 익산시장이 소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정현을 시장은 30일 간부회의에서 “부안과 논산 등 가까운 지역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와 농가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 상황을 잘 살펴 지원하고 모기 등 매개 곤충 차단을 위한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익산시는 지난 28일부터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현재 지역 800여 소 사육 농가 중 대부분에 백신 공급과 함께 관련 교육이 진행됐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공수이사 명을 통해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정부 권고 기한인 오는 11월 10일보다 앞당긴 11월 5일까지 모든 접종을 서둘러 마칠 계획이다.

이날 정 시장은 간축 예산 상황 속

에서도 시민들과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멈춰져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정 시장은 “정부 간축 예산 기조에 맞춰 우리 시에서도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비집행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위촉되지 않고 지켜내는 마음으로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오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10년 만에 열리는 익산 농업기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홀로그램 속 사업,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 아동복지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유초중고 교장단과 ‘교육백년대계’ 논의

정현을 익산시장이 명품교육도시 발전을 위해 지역 유초중고 교장단과 교육백년대계를 논의한다.

익산시가 30일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단 11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의 최전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장단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익산시가 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유치원 4개원, 초등학교 60개교, 특수학교 2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18개교의 교장 110명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명품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 활동, 돌봄지원, 학교 주변 불법주차 해결 방안, 특수학교 일자리 연계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간담회에 앞서 교장단은 익산의 대표 기업인 (주)해림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현장학습 자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도약 등 익산 지역 현안에 상호 정보 교류와 함께 산업 현장을 방문해 내년도 학교 현장학습 추진을 위한 견학의 기회를 제공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인사제도 개선방안 지속 추진

직원 모두 공감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군산시가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시는 투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2020년도부터 내부총평도가 연속해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내부총평도 저하 요인으로 인사제도가 가장 큰 문제로 꼽혔기 때문이다.

시는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직급·직렬별 회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가점 최소근무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이러한 인사제도 개선방안 실시 후 진행된 첫 인사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만족도가 49%로 조사됐지만 지난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는 51%,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58%로 인사만족도가 점차 향상돼 직원들이 인사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변화를 직원들이 실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시는 인사제도 개선방안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2024년 7월 정기인사에서는 인사만족도 70%를 목표로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개인 인사고충 해결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인사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직원들이 만들어가는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의견수렴해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화학사고 대비 재난대응 현장훈련

군산시가 최근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아차전지 관련 사업과 관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대응 현장 훈련을 실시했다.

시는 화학사고 대비 실질적 대응역량을 높이고 1차 대응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30일 ‘2023년 지역특성화 재난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군산소방서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훈련은 총 12개 기관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역특성화 훈련으로 화재 발생에 이은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가정해 기획했다.

이는 지난 7월 군산(새만금)이 아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 관련 기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화학물질 누출관련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훈련은 신속한 상황전파와 재난관리 및 현장조치에 중점을 두어 실시됐다.

1단계 초동대응에서는 △사고신고 및 직원대피, △회사 내 자체 자위소방대 진화활동, △소방서 선차대 현장 도착 및 진화활동,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긴급대책 강구 등 2단계 총력대응 3단계 화학물질 누출 대응 등이 진행됐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집중호우특별재난 지역 측량 수수료 감면

익산시는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는 100% 전액 감면되며, 그 외 호우피해로 인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현재까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경계측량 9건에 대해 350만원의 수수료를 감면했다.

감면신청은 경계복원, 분할, 현황측량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신청 시 시장 또는 읍·면장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종합민원과 지적계(☎89-5847)·합영지적계(☎89-4676)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학자금 대출 발생이자 전액 지원

익산시가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로 대출받은 학자금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15일간 ‘2023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7년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10월 30일 기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휴학생을 포함한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다.

신청은 익산시청 누리집(<http://www.ksan.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서 작성과 함께 주민등록초본과 재학(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대출 정보 주소, 대학(원) 재학 정보 등 확인을 거쳐 최종 선발되고 신청자가 많은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